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서향



지난 달 발생한 미얀마의 사이클론(인도양 태풍) 피해와 중국 쓰촨성의 지진 참상은 우리를 인간에게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생생한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4년 전 동남아에서 발생했던 쓰나미의 사례가 보여 주었듯이 이같은 자연재해는 한 국가의 안보와 사회안정,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스(SARS)나 조류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전염질병과 같이 새로운 '21세기형 안보위협'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즉, 자연재해와 전염질병 등은 해당 국가에게 미치는 피해의 대규모성과 발생의 돌발성으로 인해 군사위협 못지 않게 국가의 명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간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대비하는 자세나 대책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물론 국가에 따라 예방조치 및 대비태세를 비

교적 잘 갖춘 나라도 있지만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보아 온 형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연재해 대응 바로 알기

우리가 자연재해와 전염질병 등을 단순히 '신(神)의 행위'가 아닌 새로운 21세기형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예방조치 마련과 대비책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최근에 나타나는 자연재해는 과거와 달리 인간에게 주는 피해 범위가 엄청나 비교가 안될 정도라는 점이다. 이번에 미얀마를 덮친 사이클론이나 중국을 강타한 지진의 규모와 피해는 모두 세계 기록급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재해와 전염질병이 21세기형 안보위협으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결국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개개인 삶의 질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태풍과 중국의 지진으로 수만명이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수백만명이 집을 잃고 생활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났다는 사실은 자연재해가 어떠한 재래식 전쟁이나 무력갈등보다 더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가 21세기형 안보위협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미 일부 전문가 및 학자들은 이번엔 중국과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과 태풍은 앞으로 지구에게 닥칠 더 큰 자연재해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인간이 과거 오랫동안 과도한 산업활동으로 자연환경에 대해 저지른 기후변화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고와 예측을 사람들이 전혀 심각히 인정하지 않고 예방조치와 대비책의 마련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는 장기기간에 걸쳐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진

행되므로 사람들이 즉각적인 관심을 쏟지 않고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것이다.

자연재해와 관련, 최근 발간된 해외연론 타임지는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에 소재한 울살라 빙하의 76년 전 사진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76년 전 찍힌 울살라 빙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무뎠던 것이었으나 최근의 사진은 이 빙하가 완전히 녹아 호수로 변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의 기후변화는 이제 그 속도가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지난 80년간의 변화는 이제 진행속도가 빨라져 똑같은 변화가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21세기형 안보위협이 물론 전적으로 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목격해 온 기록적인 지진과 태풍 등이 더 큰 자연재해를 시사하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은 앞으로 환경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회, F1특별법 제정 '재추진' 서둘러라

전남의 핵심 현안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이 18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대 국회와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76년 전 찍힌 울살라 빙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무뎠던 것이었으나 최근의 사진은 이 빙하가 완전히 녹아 호수로 변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의 기후변화는 이제 그 속도가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지난 80년간의 변화는 이제 진행속도가 빨라져 똑같은 변화가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21세기형 안보위협이 물론 전적으로 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목격해 온 기록적인 지진과 태풍 등이 더 큰 자연재해를 시사하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은 앞으로 환경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고와 예측을 사람들이 전혀 심각히 인정하지 않고 예방조치와 대비책의 마련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는 장기기간에 걸쳐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진

행되므로 사람들이 즉각적인 관심을 쏟지 않고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것이다.

자연재해와 관련, 최근 발간된 해외연론 타임지는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에 소재한 울살라 빙하의 76년 전 사진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76년 전 찍힌 울살라 빙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무뎠던 것이었으나 최근의 사진은 이 빙하가 완전히 녹아 호수로 변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의 기후변화는 이제 그 속도가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지난 80년간의 변화는 이제 진행속도가 빨라져 똑같은 변화가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21세기형 안보위협이 물론 전적으로 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목격해 온 기록적인 지진과 태풍 등이 더 큰 자연재해를 시사하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은 앞으로 환경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고와 예측을 사람들이 전혀 심각히 인정하지 않고 예방조치와 대비책의 마련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는 장기기간에 걸쳐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진

'이혼숙려기간제' 가정 복원 계기돼야

부부가 확고히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기간제'가 오는 2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시범 운영해온 이 제도를 전국 가정법원에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늘어나고 있는 이혼율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이혼숙려기간제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일정기간을 유예하는 제도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법원의 이혼결정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등에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이혼 문제는 심각하다. 이혼율은 세계 상위권이다. 젊은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황혼이혼 증가세도 예사롭지 않다. 이혼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인 가정의 해체를 의미한다. 자녀 양육과 재산 분할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쳐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현실에서 이혼숙려기간제의 전면 시행은 의미가 크다. 이혼을 부부간의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접근하는 것이다. 법이 사생활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의 붕괴를 방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혼숙려기간제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일정기간을 유예하는 제도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법원의 이혼결정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등에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이혼 문제는 심각하다. 이혼율은 세계 상위권이다. 젊은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황혼이혼 증가세도 예사롭지 않다. 이혼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인 가정의 해체를 의미한다. 자녀 양육과 재산 분할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쳐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기고

최용철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오염된 도랑이나 냇강을 그대로 두고서는 강의 분류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주는 말이기도 하다.

영산강은 하천법으로 구분하면 국토보전상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5개,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1급 하천 2개와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에 유입되는 지방 2급 하천이 163개나 된다. 우리가 통상 부르는 셋강은 지방 2급 하천이다. 하천법상 하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즉 윗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소하천, 도랑, 실개천까지를 셋강에 포함시키면 그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로이트시와 인접해 있는 웨인(Wayne) 카운티의 버즈강은 오래전부터 벌목을 일삼고 버려진 쓰레기와 각종 오·폐수로 인해 거의 죽은 강이었다. 이렇게 되자 후년 고등학교 과학반 학생들이 수질을 분석하여 신문사에 의뢰해 공표한 것이 '버즈강의 빛', '버즈강 자문단'이라는 민간환경단체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성공 모델은 미국 전지역으로 확산됐다.

올해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다른 나라의 셋강복원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아 온갖 쓰레기와 오·폐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영산강의 셋강을 빨래하고 가재 잡던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영산강 셋강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신음하는 셋강을 살려야

우리 지역에서 '남도의 젓줄'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영산강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분류 위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오랫동안 둔치면적의 30% 이상을 농경지로 활용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등의 잘못이 있지만 크게 보면 영산강의 셋강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부족이 불러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영산강의 수질이 좋은 것도 아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투자한 비용은 처치하고 2001년부터 약 6년간 투자한 정부예산만 해도 8천억원에 이른 다. 그럼에도 영산강 본류의 수질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나쁜' 상태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셋강이 오염되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산강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진리를 말없이 일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루즈(Rouge)강 복원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미시간주 디트

로이트시와 인접해 있는 웨인(Wayne) 카운티의 버즈강은 오래전부터 벌목을 일삼고 버려진 쓰레기와 각종 오·폐수로 인해 거의 죽은 강이었다. 이렇게 되자 후년 고등학교 과학반 학생들이 수질을 분석하여 신문사에 의뢰해 공표한 것이 '버즈강의 빛', '버즈강 자문단'이라는 민간환경단체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성공 모델은 미국 전지역으로 확산됐다.

올해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다른 나라의 셋강복원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아 온갖 쓰레기와 오·폐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영산강의 셋강을 빨래하고 가재 잡던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영산강 셋강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셋강은 우리 몸에 있어서 싼피줄과 같다. 싼피줄이 병들면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없듯이 셋강을 살리지 않고서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바라건대 이번 망월천 살리기 발대식이 도화선이 되어 남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산강 셋강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재인

중국 대지진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타산지석이 아닌가 싶다. 최근 천체지진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곳은 태풍으로 인한 미얀마이다. 하지만 중국 지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학교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진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다 다만 건축물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암묵적 인제(人災) 인식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중국 대지진의 참변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내진 설계에 대해 되짚어 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도대체 마구 흔들려 대는 지진을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지진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지진에 잘 견디

달린 신발을 신긴다거나, 스카이프공처럼 스프링을 달았다고 상상해보자. 흔들리는 땅과 건물을 분리시켜 건축물과 땅 사이에 진동충격 완충장치로서 볼 베어링이나 스프링, 방진고무 패드를 설치하여 땅의 흔들림의 양을 건물에 보다 적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액체가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건물을 베어링 띄워서 짓자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지진이라는 적의 공격에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내진이나 면진은 수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여 지진의 진동에 반대방향으로 건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능동적인 방법도 있다. 이를 제

지진에 견디는 건축물의 비밀

기 위해서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가 우리의 관건이다.

지진에 견디는 방법은 크게 내진(耐震)·면진(免震)·제진(制震)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내진은 지진력을 구조물의 내력으로 감당해내자는 개념이고, 면진은 지진력의 전달을 줄이자는 개념이며 제진은 지진력에 맞대응을 하자는 능동적 개념이다.

우선 내진의 핵심은 철근콘크리트 내진벽으로 건물을 단단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는 옛말도 있듯이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대피할 정도의 시간을 벌어주는 자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건물은 금이 가거나 파괴되어 나중에 사용할 수는 없다. 이 방법을 보통 내진설계라고 하며, 광의의 개념으로 면진과 제진의 개념을 포함하기도 한다.

면진은 지진을 면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 건물에 바퀴

달린 신발을 신긴다거나, 스카이프공처럼 스프링을 달았다고 상상해보자. 흔들리는 땅과 건물을 분리시켜 건축물과 땅 사이에 진동충격 완충장치로서 볼 베어링이나 스프링, 방진고무 패드를 설치하여 땅의 흔들림의 양을 건물에 보다 적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액체가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건물을 베어링 띄워서 짓자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지진이라는 적의 공격에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내진이나 면진은 수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여 지진의 진동에 반대방향으로 건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능동적인 방법도 있다. 이를 제

현제 우리나라는 3층 이상에만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규정된 법에 얽매이거나 중국과 같이 경제성의 논리로 내진설계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대형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소형건축물의 내진에도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겠다.

<어린이건축교실 운영위원>

농민 생계 위협 국유지 임차료 20% 인상 재검토를

국유지 8천265㎡(2천500평) 정도를 빌려서 농사 지어왔는데 올해 임차료가 20%나 인상됐다. 350만원 가량 더 들게 됐다. 정말 뼈빠지게 일해봤자 임차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게 됐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자 그 덕분에 근처에 있는 다른 농지들도 덩달아서 뛰었다. 농지 대부분은 공시지가의 1%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농산물 가격과는 상관없이 공시지가가 인상되다보니 농민들이 견디낼 기간이 없다.

농촌 근처에 도시가 개발돼 농지를 잃은 농민들은 자꾸만 대토지를 찾아서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대책없이 국유지 임차료를 올리는 정책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요즘 소고기 문제나 PTA문제로 온 국민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의 농촌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국유지의 임차료 문제도 재검토 해주기를 바란다.

▲김옥임·순천시 인제동

도서관 열람실에서 낯잠 자는 노숙자 출입 제한 해야

며칠 전 시내 도서관 열람실에 갔다. 어디선가 허구적일지 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40대로 보이는 저지분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숨에 취한 채 의자 2개 붙여놓고 누워서 낯잠을 자고 있었다. 노숙자인 듯했다.

주말이면 도서관 열람실은 이용객들이 넘쳐 좌석 경쟁까지 벌어진다. 그런데 노숙자가 악취를 풍기며 숨에 취해 드러누우니 그

주변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렇잖아도 보통 전 낮에 한 노숙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 도서관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곳이다.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이용자들이나 도서관 목적에 맞지 않는 이들은 도서관 측에서 출입을 제한했으면 한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1동

無等鼓

유럽업계에서는 '경기 3할 남세 7할'이라는 말이 통용된다. 그만큼 날씨가 매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마케팅에서 날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엘니뇨에 따른 기상이변을 노린 국제 투기자본이 몰리면서 밀과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맥주의 경우 더운 여름철 흐린 날에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한다. 한 편의점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맑은 날 맥주 매출은 100%였을 때 무더운 그 날은 116%를 기록했다.

지구 온난화로 여름도 무더운 날이 많아지고 있다. 폭염은 가장 심각한 기상재해 중 하나로 꼽힌다. 200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3만5천여명이 숨졌으며 미국에서는 매년 170여명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1994년 여름 폭염 때문에 180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 1일부터 폭염특보가 운영되고 있다. 올 들어 첫 도입된 폭염특보는 6

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폭염특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4개월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여름철 더위가 심하지 않아 그동안 폭염특보제 운영을 미뤄왔으나 지구 온난화로 상황이 달라졌다.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도 특보제 도입의 한 원인이 됐다.

폭염특보는 기온과 습도가 복합된 무더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수치로 나타낸 열지수와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된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35도 이상, 열지수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연속 이어지면 경보가 발표된다.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로 전기가 많이 드는 냉방기 가동도 조심스러워지면서 벌써부터 무더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살림살이가 각박해진다. 기상이변으로 건강할 여름 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김재철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정 처 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